

#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Toward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Children's Stress

-Stressor, Coping behavior and Symptom-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강사 鄭苑珠

교수 尹鍾姬

Dept. of Family Welfare & Community Services DongDuk Women's University

Lecturer : Chung Won-Joo

Prof. : Yoon Chong-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effects of children's stress level and coping behaviors on their stress symptoms. The subjects were 840 4-6th grade children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OVA, stepwise regression and Cronbach's  $\alpha$ .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46% of children's stress symptoms which were affected by coping behaviors(emotional aggression, positive revaluation, seperation for emotional relaxation) and by stressors(children's social-life, individual factors, school-life).

\*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임.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에는 가족 외 성인이나 또래, 매스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가정과 이웃에 국한되었던 생활환경의 범위가 학교 등 보다 넓게 확대됨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사회적 적응을 해야하므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 갈등을 어떻게 수용, 해소하느냐에 따라 그후의 성격발달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아동 후기인 4-6학년의 경우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시기이므로 심리 및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스트레스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Elder & Caspi, 1988).

아동들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비슷하지만 아동기는 성인기와 달리 아직 발달하는 과정이고, 또 주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은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성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 하기가 힘들고, 그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Medeiros, Porter & Welch, 1983)는 점에서 성인보다 더욱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어서 몇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을 뿐(송의열, 1995; 오명희, 1994; 윤유경, 1990; 이정미, 1996; 천민필, 1993; 한상근, 1993)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대별해 보면 스트레스의 각 하위구조인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측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측면,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원인으로 부하된 스트레스 결과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구조적 특성이 이러하다고 해서 이들 하위구조가 언제까지나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연구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스트레스의 세 영

역의 하위 부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통합 연구되어야 하며, 통합되지 않은 단편적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하여 해석, 이해를 한다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원 또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단편적인 주제에 초점을 둔 연구간에도 결과 또한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의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바탕 위에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에서 본 연구는 초동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그리고 두변수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수로서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효과로써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스트레스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배경변인(성, 학년, 출생순위, 주거형태, 가족형태, 아버지의 직업, 부모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종교, 가계소득)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증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둘째로는 아동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상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라 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증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설명하는 상기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스트레스 증상을 설명하는 상기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관련연구 고찰

### 1. 스트레스의 개념 및 정의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스트레스의 개념은 크게 세 측면으로 구분된다(Lazarus & Folkman, 1984). 즉,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매개체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경험은 자극에서 반응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정의를 통용하기는 하나 세 모델 모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양병환, 1991). 스트레스를 자극에서 반응까지 전 과정이라 본다면 개념 또한 총체적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느끼는 스트레스원에 의한 스트레스가 어떠한 대처 행동을 통해 나타나며 그 인과적인 결과로써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상을 통합적으로 개념화하였다.

### 2. 스트레스원

본 연구는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여 아동이 직접 몸 담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미시체계의 제공원(개인, 가정, 학교, 사회)에 따라 분류하였다.

**개체특성:** 개체 요인은 건강 및 신체 발육 영역으로 하위 영역이 다르게 정의된다. 외모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체 요인으로 본 연구결과는 심각성의 정도가 매우 낮다(이정미, 1996)거나 그 반대로(이소은, 1990; Kellerman, 1981, 진은경, 1990, 재인용)보고한다. 이 중에는 같은 연구대상(초등학교 4-6학년)과 유사한 조사법(질문지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신체자아(Miller, 1985), 자신감이나 건강(천민필, 1993), 자기지각(장은수, 1994), 질병이나 상해(천민필, 1993)도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 자기지각에 의한 스트레스는 무력감과 열등의식이 초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정환경:** 가정환경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분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위환경, 구조환경, 과정환경(정원식, 1992)으로 분류하였다. 지위환경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제공(이정미,

1996; Honig, 1986)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 건강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임규혁, 1984)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에게 과잉기대와 편애를 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천민필, 1993). 구조환경인 가족형태에서는 핵가족이 대가족보다(박소영, 1995) 취업모가 전업주부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 1992; Honig, 1986). 그러나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는 비취업모의 아동이 학업영역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리적 환경인 과정환경은 지위환경보다 아동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더 깊은 관계가 있었다(이정미, 1996).

**학교생활:** 오늘날의 학교는 점점 더 산업화되고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교과서의 표준화, 교사들의 획일화, 평가제도의 기계화가 확산되어 학생들에게 정형화된 역할과 태도, 지겹고 끝없는 무의미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아동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Elkind, 1995).

선행연구는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학업 관련, 대인관계 관련, 그리고 기타요인으로 분류한다. 학업 관련 요인은 성적, 학원, 숙제의 과잉부담(송의열, 1995; 이정미, 1996; 진은경, 1990; Band & Weisz, 1988; Kaufman, 1985)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연구들은 여러 스트레스 요인중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높다고 했으나 그 반대 결과도 있다(손정희, 1995). 후자의 경우 연구대상의(서울의 특정 사립초등학교)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인 관련 요인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꾸중이나 선생님의 전체적 지도 문제(강봉규, 1992; 이정미, 1996), 친구간의 문제가 있다. 특히 또래 문제는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오명희, 1994; 윤유경, 1990; Band et al., 1988)으로 나타났다. 기타 요인은 학교 환경, 시설과 관련된 요인으로 좌석배치, 교실내 시설배치, 아동의 밀집과 혼잡 정도, 소음, 시설낙후, 사생활 공간들이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정희, 1995).

**사회생활:** 사회요인은 주변 문화(광고, 오락시설), 사회 문제(빈부격차, 남녀불평등), 대중매체(매체의 상업성, 유행어), 사회관념(남아편애, 학력중시사상)이 있다(천민필, 1993; Elkind, 전게서, 1995). 소음공

해 등 사회주변의 문제는 아동의 스트레스원이다(한상근, 1993).

### 3. 스트레스 대처행동

대처행동이란 효율성과는 관계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 개인의 모든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다. 성인 대상 대처행동 이론을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간파한 몇몇 연구자들은(Band et al., 1988; Compas, Malcarn & Fondacaro, 1988) 아동, 청소년, 성인의 대처행동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면접과 비구조화된 질문지법으로 아동의 대처행동을 개념화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최근들어 Ryan-Wenger(1992)는 아동의 대처행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Lazarus 외(1984)의 대처행동 정의에 바탕을 두고 1981년-89년간 미국과 서구의 16개 아동 대처행동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처항목을 내용과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격적 활동, 행동적 회피, 행동적 기분전환, 인지적 회피, 인지적 방심, 인지적 문제해결, 인지적 재구조화, 감정표현, 인내, 정보추구, 고립활동, 자아통제활동, 사회적지지, 영적지지, 스트레스 요인 수정의 15개의 하위 영역을 구성하였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관련 연구는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김영교, 1995; 이정미, 1996; Compas et al., 1988; Lazarus et al., 1984), 성격특성(장은수, 1994), 스트레스 요인(윤유경, 1990; 이소은, 1990; Band et al., 1988)에 따라 대처행동 유형이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 4. 스트레스 증상

과거에는 스트레스가 단지 인간의 정신세계에만 작용한다고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신체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Lazarus et al., 1984). Youngs(이일남 역, 1995)와 이상수(1992)는 10대들의 스트레스 증상을 신체, 정서, 행위적 증상으로 대별하였다. 아동 대상의 스트레스 증

상은 일시적인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심한 병적 증상 등 정도별로(김영화, 1995) 나누거나, 양육자에게 우호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잦은 백일몽, 과잉행동, 집중력 감소 등 유형별로 나누기도 한다(Honig, 1995). 유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극적 또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난다(김나림, 1996).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척도가 없는 실정에서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의 세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라 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증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력이 큰 변수는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을 대상으로 목적성 있는 임의 표집 방법으로 1개의 지역 교육청에서 상, 중, 하 계층이 고루 분포된 3개의 초등학교 학생 840명을 선정하였다.

### 2. 측정도구

스트레스원: 일차적으로 송의열(1995), 정원식(1989), 천민필(1993), 한미현(1996) 등 기존 척도에서 42개 문항을 선정. 아동학 및 가정학 전공교수 5인의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alpha = .89$ ) 총점과 문항간의 상관관계(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 문항양호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과 신뢰도를 참조하여 30개 문항만을 최종선택한 후 실시한 본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87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계수는 .65- .77의 수준이었다.

대처행동: Lazarus 등의 대처행동 척도 문항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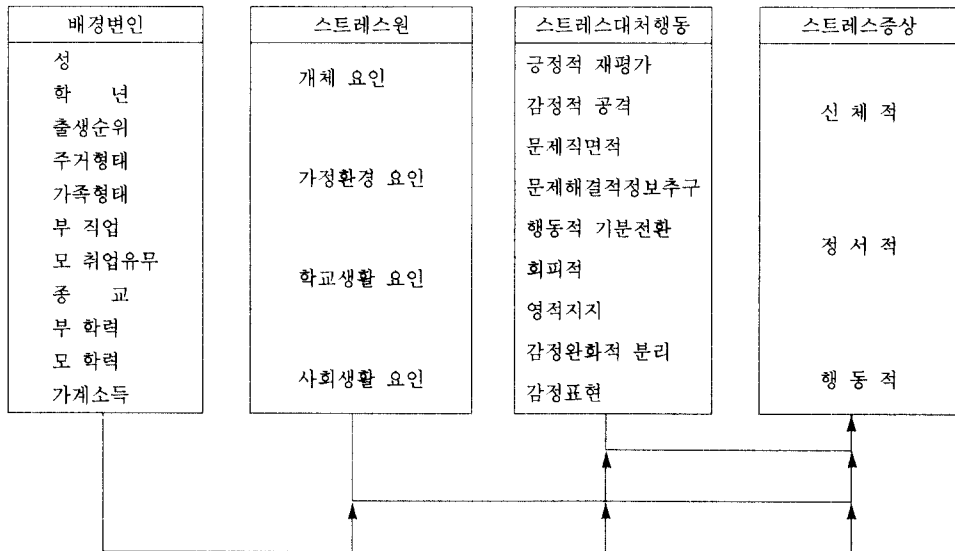
존 연구(윤유경, 1990; 이소은, 1990; 이정미, 1996; 진은경, 1990; 한미현, 1996)의 문항을 선정하고 또 1차예비조사로 129명의 아동들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배포하여 범주화하지 않은 아동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여기에 Ryan-Wenger의 대처행동 범주를 참조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필요한 문항들을 포함, 총 89개 문항을 선정하여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alpha = .95$ ). 타당도는 문항 양호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Cramer V계수 및 요인부하량,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최종적인 척도는 9개요인<sup>2)</sup> 75개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의 신뢰도계수는 .95였으며 각 하위 영역은 .61- .90의 수준이었다.

스트레스 증상: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결과로써 나

타나는 스트레스 증상은 김영화(1995), 이상수(1992), Honig(1995), Youngs(1995)등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33개의 문항을 제작하여 아동학 및 가정학 전공자 5인의 안면타당도를 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alpha = .91$ )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과 문항간 상관관계를 참조하여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의 3개요인 24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척도화하였다. 본 조사의 신뢰도계수는 .87이며 각 하위영역은 .64- .82의 수준이었다.

3. 연구절차

1차 예비조사: 스트레스원 42개 문항, 스트레스 증



<그림 1> 연구모형"

1) 이 연구 모형에서 대처행동과 증상간 어느 것이 선행 변인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순환고리가 볼 수 있다(김정희, 1987). 종단적 연구 법으로 두변인간 관계 분석이라면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순환적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본 연구와 같이 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횡단적 연구에서는 그 당시의 적용/부적용의 결과인 증상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모형은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선행변인으로 개념화하여 설정되었다.

2) Ryan-Wenger의 15개 하위영역에 대한 우리 문화에의 적용여부를 타당화 조사를 통해 검증한후(정원주와 윤중희, 1997), <그림 1>의 9개 요인을 아동의 대처행동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상 33개 문항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를 K구 소재 초등학교에 1996년 12월 11일 150부를 배포, 12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 타당도 검증후 스트레스원은 30개문항, 스트레스 증상은 24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2차 예비조사: 1차 예비조사에서 수집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아동의 답변 자료와 기존 연구자들의 대처행동 목록을 참조하여 89개 문항의 대처행동 척도를 제작, K구 소재 2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에게 1997년 3월 5일 500부를 배포하여 3월 10일 492부를 회수, 48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문항 양호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한 결과 9개 요인 75개 문항으로 구성된 대처행동 척도를 제작하였다.

본 조사: 본 조사는 스트레스원 30개, 스트레스 대처행동 75개, 스트레스 증상 24개 문항 및 배경변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상, 중, 하 계층이 고루 분포되도록 임의표집한 K구의 3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1997년 3월 24일 840부를 배포하여 3월 27일 812부를 회수,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759부를 분석하였다.

#### 4. 자료분석

자료 처리는 SPSS PC<sup>3)</s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빈도와 백분율,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는 일원 변량 분석과 Scheffé 검증, t 검증, 대처행동 및 증상의 하위 영역은 요인분석, 이들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남아가 52.6%, 5학년 36.9%, 만이가 49.7%,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가 65.6%, 핵가족이 87.4%의 분포였다. 교육수준은 대졸 42.3%(아버지), 고졸 57.5%(어머니)였으며, 아버지의 직업<sup>3)</sup>은 판매서비스직이 60.8%로 가장 많고, 비취업모가 6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72.5%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51만-200만원인 경우가 26.1%로 가장 많았다.

### 2. 아동 배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원, 대처행동 및 증상의 차이

(1) 아동의 배경 변인과 스트레스원: 아동 스트레스 수준은 배경변인중 학년,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 1>. 즉 6학년이 4, 5학년보다, 확대가족 아동이 핵가족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기존 연구(박소영, 1995)에서는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대상이 청소년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개체 요인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는 성, 학년, 가족형태에 따라, 학교생활 요인은 성, 학년에 따라, 사회생활 요인은 학년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가정환경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개체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6학년이 되면서 많아지는 것은 다른 연구 결과(손정희, 1995)와도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이 사춘기가 가까워지면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남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년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의미있는 변수였다. 이는 6학년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차이있게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를 참조해 무직에서 전문직까지 8가지로 세분화된 직업을 본 연구에서는 생산기능직, 판매서비스직, 사무관리직, 전문직등 4단계로 재분류하였다.

〈표 1〉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원의 차이

구 분	집 단	스트레스원				
		개 체 요 인	가정환경요인	학교생활요인	사회생활요인	
		Mean/Scheffé	Mean/Scheffé	Mean/Scheffé	Mean/Scheffé	Mean/Scheffé
성	남	57.07	14.04	14.01	17.08	11.94
	여	58.98	15.14	13.69	18.24	11.98
	t 값	1.98	3.63***	-1.04	2.92***	0.17
학 년	4 학년	55.63 a	13.84 a	13.74	16.81 a	11.24 a
	5 학년	57.36 a	14.41 a	13.52	17.65 ab	11.88 a
	6 학년	60.79 b	15.39 b	14.37	18.34 b	12.70 b
	F 값	8.90**	8.50**	2.96	4.61*	9.16**
가족형태	핵가족	57.52	14.40	13.79	17.50	11.88
	확대가족	61.20	15.78	14.35	18.53	12.53
	t 값	-2.44*	-3.04***	-1.25	-1.72	-1.57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의 배경 변인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학년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표 2). 즉 6학년이 4, 5학년보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학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6학년이 되면서 어느 한 가지 대처행동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Pearlin & Schooler, 1988)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학년이 높고(긍정적 재평가, 감정적 공격, 문제직면적, 행동적 기본전환, 영적지지, 감정완화적 분리에서), 여아이고(영적지지, 감정완화적 분리에서), 확대가족인 가족형태(문제해결적 정보추구에서)이며, 종교가 있는 경우(영적지지, 감정표현에서) 각각의 언급한 영역의 대처행동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배경 변인과 스트레스 증상: 스트레스 증상은 학년에 따른 차이만을 보인다. 즉 6학년이 4

학년보다 스트레스 증상을 더 느끼는데(표 3) 특히 정서적, 신체적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성에 따라 정서적(여아), 행동적(남아) 증상의 차이를 보여 기존 연구 결과(오명희, 1994)와 일치한다. 그리고 단독주택인 주거형태에서 신체적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 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제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sup>4)</sup>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사회생활요인이었고, 개체요인, 학교생활요인 순이었으며, 배경변인중 학년만이 영향을 미쳤다(표 4).

9개의 하위요인별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재평가는 사회생활, 개체, 학교생활로 인한

4)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공선성가능성과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채서일, 김범종과 이성근, 1993) Durbin-Watson검증, 잔차의 정규분포검증, 오차항의 분산 동질성 검증의 세 단계 절차를 거쳤다. 독립변수중 아동의 배경 변인에서 출생순위, 주거형태, 종교는 제외시키고 성, 가족형태,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가변수화 하였다.

〈표 2〉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구 분	집 단	스트레스 대처행동	긍정적 재평가	감 정 공격적	문 제 직면적	행동적 기본선 회 환	문제해결적 정보추구	영적지지	감정완화 적 분리	회피적	감정표현
		Mean/ Scheffé	Mean/ Scheffé	Mean/ Scheffé	Mean/ Scheffé	Mean/ Scheffé	Mean/ Scheffé	Mean/ Scheffé	Mean/ Scheffé	Mean/ Scheffé	Mean/ Scheffé
성	남	149.58	35.40	22.53	26.84	19.20	14.07	8.35	8.34	9.99	5.41
	여	151.75	36.07	21.80	27.52	20.01	14.13	8.95	9.16	10.14	5.77
	t 값	0.72	0.80	-1.15	1.17	1.92	0.18	2.19*	3.59***	0.61	1.90
학년	4 학년	142.22 a	33.64 a	20.86 a	26.71 ab	18.86 a	13.81	7.89 a	8.62 ab	9.89	5.49
	5 학년	146.49 a	34.53 a	22.16 ab	26.39 a	18.91 a	13.78	8.26 a	8.39 a	9.93	5.56
	6 학년	162.17 b	38.83 b	23.38 b	28.42 b	21.04 b	14.69	9.68 b	9.23 b	10.37	5.69
	F 값	16.83**	15.25**	5.06**	4.95**	10.67**	2.94	16.69**	4.99**	1.45	0.37
가족 형태	핵가족	150.51	35.71	22.17	27.21	19.63	13.95	8.54	8.72	10.03	5.58
	확대가족	151.27	35.80	22.29	26.93	19.50	15.17	9.32	8.86	10.31	5.59
	t 값	-0.16	-0.07	-0.12	0.32	0.19	-2.26*	-1.90	-0.43	-0.75	-0.02
종교	유	152.27	36.14	22.21	27.29	19.76	14.20	8.85	8.76	10.21	5.72
	무	146.99	34.77	22.32	26.97	19.18	13.91	8.06	8.73	9.73	5.27
	t 값	1.57	1.46	-0.15	0.49	1.18	0.73	2.60**	0.12	1.69	2.16*

\* p &lt; .05, \*\* p &lt; .01, \*\*\* p &lt; .001

〈표 3〉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증상의 차이

구 분	집 단	스트레스증상	정 서 적	신 체 적	행 동 적
		Mean/Scheffé	Mean/Scheffé	Mean/Scheffé	Mean/Scheffé
성	남	44.99	19.19	15.07	10.83
	여	45.52	20.42	15.23	10.10
	t 값	0.60	2.57**	0.42	-2.96***
학 년	4 학년	43.11 a	18.44 a	14.38 a	10.23
	5 학년	45.36 ab	19.82 ab	15.30 ab	10.54
	6 학년	47.04 b	20.09 b	15.67 b	10.64
	F 값	6.37**	8.49**	4.06*	0.89
주거형태	F 값	1.83	2.30	1.59	2.12
	공동	45.21	20.10	14.88	10.40
	단독	45.36	19.18	15.72	10.60
	t 값	-0.15	1.83	-2.14*	-0.76

\* p &lt; .05, \*\* p &lt; .01, \*\*\* p &lt; .001



〈표 4〉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수	스트레스																				
	대처 행동		긍정적 재평가		감정적 공격		문제직면적		행동적 기본전환		문제해결적 정보추구		영적지지		감정완화적 분리		회피적		감정표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 별																					
학 년	5.67	.13***	1.78	.13***	.78	.07*			.60	.08*			.64	.14***							
가족형태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유무			-1.88	-.08*					-1.09	-.09*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98	.07*													
가계소득																					
스트레스원	1.95	.23***	.37	.14***			.42	.23***	.28	.19***	.28	.25***	.09	.10*	.11	.15***	.11	.13**	.10	.17***	
개체요인					.21	.10*	.25	.14**			.12	.10*									
가정 환경 요인	1.10	.17***	.25	.13**	.24	.16***	.17	.12**			.15	.18***	.09	.14**	.08	.13***	.09	.15***	.05	.12**	
학교 생활 요인	2.54	.28***	.42	.15***	.43	.19***	.21	.11*	.30	.19***			.17	.18***	.15	.19***	.19	.21***	.09	.14**	
사회 생활 요인	43.96***		12.44***		5.99***		9.95***		9.25***		5.73***		.44		4.25***		4.62***		2.05***		
(Constant)																					
R <sup>2</sup>		.33		.14		.15		.22		.13		.19		.15		.16		.15		.11	

\* p < .05. \*\* p < .01. \*\*\* p < .001

스트레스, 학년, 어머니의 취업유무의 순으로, 감정적 공격은 사회생활, 학교생활,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년의 순으로, 문제직면적 대처행동은 개체,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계소득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행동적 기본전환은 개체, 사회생활, 어머니의 취업유무, 학년의 순으로, 문제해결적 정보추구는 개체, 학교생활, 가정환경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순으로, 영적지지는 사회생활, 학교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년, 개체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감정완화적 분리는 사회생활, 개체, 학교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성별의 순으로, 회피적 대처행동은 사회생활, 학교생활, 개체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순으로, 감정 표현적 대처행동은 개체, 사회생활, 학교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제각기 다르며 각 독립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도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르다(R<sup>2</sup>=.11-.22). 아동들은 개체요인,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는 9가지중 8개 이상의 다양한 기제를 사용하여 대처하였지만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는 다양한 기제를 사용하는 대신 감정적 공격, 문제직면적 또는 문제해결적 정보추구의 대처행동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원이 배경 변인보다 아동의 대처행동에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원이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영역이 연구자마다 다르므로 서로의 결과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4. 아동의 스트레스 증상과 제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감정적 공격, 사회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긍정적 재평가, 개체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정완화적 분리, 학교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순으로 영향이 있었다 <표 5>.

하위영역별로 보면 정서적 증상은 감정적 공격, 사

회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교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긍정적 재평가, 영적지지, 감정완화적 분리, 성별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신체적 증상은 감정적 공격, 개체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직면적, 감정완화적 분리, 학교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회피적 행동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행동적 증상은 감정적 공격, 사회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회피적 행동의 순으로 영향이 있었다.

<표 5> 스트레스 증상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스트레스							
	증상		정서적 증상		신체적 증상		행동적 증상	
	b	(β)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1.10	-.08*				
학년								
가족형태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유무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계소득								
스트레스원								
개체요인	.40	.14***			.22	.18***		
가정환경요인								
학교생활요인	.24	.11**	.16	.13**	.09	.10*		
사회생활요인	.53	.17***	.26	.16*	.13	.10*	.17	.20***
스트레스 대처행동								
긍정적 재평가	.15	.14***	.07	.12**				
감정적 공격	.44	.31***	.19	.25***	.14	.24***	.13	.34***
문제직면적					.10	.17***		
행동적 기분전환								
문제해결적 정보추구								
영적지지			.18	.10*				
감정완화적 분리	.44	.12**	.20	.10*	.19	.12**		
회피적					-.14	-.10*	.10	.11*
감정표현								
(Constant)	9.18		4.21***		2.44**		4.39***	
R <sup>2</sup>	.46		.36		.33		.26	

\* p < .05. \*\* p < .01. \*\*\* p < .001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배경 변인보다는 스트레스원이, 스트레스원보다는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증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의 대처행동으로 감정적 공격을 많이 할수록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증상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 1. 아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 스트레스 증상의 차이

아동의 스트레스원은 학년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6학년이 4, 5학년보다, 확대가족의 아동이 핵가족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개체요인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는 성, 학년, 가족형태에 따라, 학교생활요인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는 성, 학년에 따라, 사회생활요인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학년이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의미있는 변수였다. 이를 가정환경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는 학교 생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동시에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원의 하위 영역별로 관련변수의 효과가 상이하므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연구주제로 다룰 때는 영역별로 세분화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수준을 하나의 통합변수로 취급하여 스트레스원에 대한 전체 점수만을 산출할 경우에는 그 차이를 구분짓는 관련 변수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학년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 아동은 학년이 높으면 다양한 대처행동기제를 사용하였다. 그 예로 긍정적 재평가, 감정적 공격, 문제직면적 해결, 행동적 기분전환, 영적지지, 감정완화적 분리영역에서 6학년생이 4,5학년생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 아가 영적지지와 감정완화적 분리영역에서, 확대가족 아동이 문제해결적 정보추구에서, 종교가 있는 아동이 영적지지와 감정표현의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했다.

스트레스 증상은 학년에 따른 차이만을 보였다. 세 부적으로는 6학년아동들이 행동적 증상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증상을 많이 보였다. 여아는 정서적증상이, 남아는 행동적 증상이, 단독주택 거주 아동들이 신체적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아동의 스트레스 증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증상을 하나로 취급하여 다루기 보다는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유형화된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련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사회생활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많이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원에 따라 아동이 대처행동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동 나름대로 스트레스원에 대해 인지평가를 한 후 대처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관련변수들이 제각기 다르며 각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도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르고 스트레스원이 배경 변인보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아동의 개별적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류와 스트레스원과 대처행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 시기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 3. 아동의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은 스트레스 증상을 감정적 공격의 대처행동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느꼈으며 사회생활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증상을 많이 느끼고 있다. 아동의 배경 변인보다 스트레스원, 스트레스원보다는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증상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에서, 특히 대처행동 중 감정적 공격의 경우 스트레스 증상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해석하면,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줄임으로써 스트레스 증상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모든 변수들을 측정하여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으므로 스트레스원,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증상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다른데(Werner & Smith, 1982) 아동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발달적인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4-6학년 아동만을 유의 표집을 하였으므로 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대상이 주로 성인이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총체적인 스트레스를 보지 않고 스트레스 정도나 대처행동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의 배경 변인과 스트레스원,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스트레스 증상을 동일모형에 놓고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종합적인 모델로서 부모, 교사나 아동 상담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 아동들의 스트레스원을 규명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어 스트레스 증상으로 괴로움을 겪는 아동과 그 가족을 돕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문희·김매희(공역), 쫓기는 아이들, 서울: 교문사, 1995.
- 2) 강봉규, 발달심리학, 서울: 정훈출판사, 1992.
- 3) 김나림, 유아의 또래간 인기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연구, 이대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4) 김영교, 부모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연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5) 김영화, 스트레스는 없다, 서울: 도서출판 건생, 1995.
- 6) 김인숙, 취업모 자녀와 비취업모 자녀의 스트레스 비교연구, 인하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7) 김정희,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8) 박소영,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응집력 및 적응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9) 손정희,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과 그 정도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10) 송의열,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연구, 건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11) 양병환, 스트레스의 개념. 정신 건강 연구, 10, 한대정신건강연구소, 1991, 1-9.
- 12) 오명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간의 연구, 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13) 윤유경,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 양상의 발달, 이대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0.
- 14) 이상수, 중학생 스트레스와 장애에 관한 연구, 한남대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2.
- 15) 이소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서울 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16) 이일남(역), 청소년 스트레스 이렇게 풀어라, Bettie B. Youngs 저, 서울: 정성출판사, 1995.
- 17) 이정미,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유형,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18) 임규혁,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1984.
- 19) 장은수, 초등학교 아동의 성격특성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연구, 한국교원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0) 정원식, 가정 환경 진단 검사, 서울: 코리안테스 탕센타, 1989.
- 21) \_\_\_\_\_,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92.
- 22) 정원주·윤종희,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95-106, 1997.
- 23) 진은경,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아동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24) 천민필,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연구, 교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5) 채서일·김범중·이성근,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학현사, 1993.
- 26) 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27) 한상근, 국민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3.
- 28)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71-182, 1983.
- 29) Band, E. B., & Weisz, J. R,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1988.
- 30)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L,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1988.
- 31) Elder, G. H., & Caspi, A,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25-45, 1988.
- 32) Honig, A. S, 아동기 스트레스, 연세대 아동학과 (11월 2일) 세미나, 1995.
- 33) \_\_\_\_\_,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part 1, *Young Children*, 54-61, 1986.
- 34) Kaufman, S. S, Stress and coping Styl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 1985.
- 35)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s Publishing Co, 1984.
- 36) Mederios, D. C., Poter, B. J., & Welch, I. D, *Children under st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3.
- 37) Miller, M. J., Tobacyk, J. J., & Wilcox, C. T, Daily hassles and uplift as perceived by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s*, 56, 221-222, 1985.
- 38) Pearlin, L. I., & Schooler, C,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1983.
- 39) Ryan-Wenger, N. M, A taxo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agies: A step toward theor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 62(2), April, 256~263, 1992.
- 40) Werner, E., & Smith, R,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 Y.: Mc Graw-Hill, 1982.